

또 역사 쓴 최경주, 한국인 최초 '시니어 메이저대회' 우승

PGA 더 시니어 오픈...메이저 챔피언 꿈 이뤄 '두번째 전성기' 14번 홀 이글 퍼트 성공하며 우승 완성...디오폰 출전권 획득

'탱크' 최경주(54)가 한국 골프 역사에 또 한 번 굵은 족적을 찍었다.

최경주는 29일 영국 스코틀랜드 커누스티의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더 시니어 오픈(총상금 28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더 시니어 오픈은 미국과 유럽의 시니어 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와 레전즈 투어의 메이저대회다.

최경주는 이 대회 우승으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양쪽 시니어 투어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위업을 이뤘다.

최경주는 PGA 투어 한국인 첫 우승과 최다 우승(8승), 그리고 PGA 투어 챔피언스 한국인 첫 우승에 이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특히 PGA 투어에서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하고 마스터스에서 3위에 오르면서도 끝내 메이저대회 우승을 이루지 못했던 최경주는 시니어 무대에서 마침내 메이저 챔피언의 꿈을 이뤘다.

더 시니어 오픈에서 아시아 선수 우승은 2002년 스카이 노보루(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2020년부터 시니어 무대에 뛰어든 최경주는 2021년 퓨어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최경주는 시니어 무대에서는 3

년 만에 2승 고지에 올랐다.

54세 생일날이던 지난 5월 19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내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갈아치워 경쟁력을 입증했던 최경주는 시니어 무대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두 번째 전성기를 열어젖혔다.

최경주는 우승 상금 44만7800 달러(약 6억2000만원)에 내년 디오픈 출전권을 손에 넣은 데다 미국과 유럽 양쪽 시니어투어에서 당분간 안정적으로 뽀 뚝뚝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경주는 PGA투어 챔피언스 슈와브컵 랭킹에서 5위로 올라섰다.

1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경주는 초반이 불안했다.

1번 홀(파4) 보기에 이어 5번(파4), 6번 홀(파6)에서 또 1타씩을 잃었다. 6번 홀에서는 페널티 구역에 볼을 빠뜨렸다.

1타차 2위로 출발했던 리처드 그린(호주)이 파행진을 벌이며 선두로 올라서고 최경주는 2타차 2위로 밀려났다.

앞 조에서 경기한 폴 브로드스트(잉글랜드)가 4, 5번 홀 버디로 최경주를 제쳤다. 줄지어 3위까지 밀린 최경주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9번 홀(파4)에서 3m 버디 기회를 만들어 이날 첫 버디를 뽑아내 분위기를 바꿨다.

10번 홀(파4)에서 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최경주는 공동 선두로 복귀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최경주는 12번 홀(파5)에서 기가 막힌 쇼트게임으로 탭인 버디를 잡아내고 13번 홀(파3)에서는 티샷을 홀 1m 옆에 붙여 연속 버디를 뽑아냈다.

13번 홀(파3)에서 짧은 파퍼트를 놓친 그린을 추월해 순식간에 3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최경주는 14번 홀(파5)에서 8m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최경주는 이글 퍼트가 들어가자 우승을 예감한 듯 오른 주먹을 불끈 쥐었다.

15번 홀부터는 굳히기에 들어간 듯 안정된 플레이를 이어 나간 최경주는 4타차 선두로 맞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티샷이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개울 바로 앞에 멈추는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최경주는 안전하게 세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뒤 퍼트 두 번으로 1타를 잃었지만 2타차 우승을 완성했다.

유럽 시니어투어에서 3차례 우승한 그린은 버디 4개에 보기 3개로 1타를 줄인 끝에 준우승(8언더파 280타)에 만족해야 했다.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2타를 줄인 넓은 브로드스트가 3위(6언더파 282타)를 차지했다.

양용은은 2언더파 70타를 쳐 2위(4오버파 292타)에 올랐다.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잡아낸 양용은은 6번 홀(파5) 트리플보기가 아쉬웠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가 29일 영국 스코틀랜드 커누스티의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더 시니어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좌식여자배구단, 울산전국장애인선수권 우승

결승전서 경남 상대 2-0 승

전남장애인배구협회 소속 선수들이 '2024 울산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남좌식여자배구단은 지난 26~28일 울산 삼동면민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와 울산시장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경남, 서울팀과 여자부 우승을 다했다.

폴리구 후 1, 2위 간 결승전이 펼쳐졌고, 전남은 경남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박정현 전남여자좌식배구단 감독은 "날도 덥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준 선수들의 공이 크다. 올해 벌써 세 번째 우승이다"라며 "선수를 최연장자가 59세로 높은 편이고, 장애인선수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부상도 잦아 훈련할 때 스트레칭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오는 10월 제44회 전국장애인



전남좌식여자배구단이 지난 26~28일 치러진 '2024울산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 8월부터 강화 훈련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표, 인천, 부산, 천안, 수원, 강원, 서울, 울산 등 8개팀이 참가한 남자부에서는 천안시청좌식배구단이 우승컵을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홍명보 감독 "10년 전과 다른 결과 내겠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 풍부한 경험·준비된 사령탑 강조

홍명보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자신의 '감독의 자격'으로 내세운 건 현장과 행정을 아우른 풍부한 경험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한국 축구를 이끌 적임자로 충분하다고 축구 팬들을 설득했다.

홍 감독은 "나는 연령별 대표팀을 지도했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도 행정을 경험했다. 이후 현장에 복귀해 K리그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자신의 커리어를 내세웠다.

홍 감독은 2005년 '아드보카트호'의 수석코치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20세 이하(U-20)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 2012년에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에 동메달을 선사했다.

2014년에는 A대표팀 사령탑으로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했으나 1무 2패로 쓴맛을 봤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 경험과 실패 경험에 더해 2017~2020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시기와 2021년부터 3년 반 동안 K리그1 울산 HD의 사령탑으로 K리그 현장을 누빈 게 모두 자산이 됐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의 핵심인 연령별 대표팀 간 연계에도 관심이 많다며 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소임'이라고도 했다.

"협회 전무이사직을 떠난 뒤 2022 카타르 월드컵,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등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는 홍 감독은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아니라도 더 훌륭한 분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양분으로 삼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16강



이상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

"10년 전엔 실패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라며 과거를 돌아본 홍 감독은 '2024년의 홍명보'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당시엔 아는 선수만 뽑는다는 인맥축구라는 얘기도 들었다. 이름값은 없어도 정작 팀에서 헌신할 수 있는 선수는 몰랐다"고 실책을 인정한 뒤 "경력이 좋다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선발할 것이다. K리그와 동반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릴 것이다"고 밝혔다.

선수단을 이끌기 위한 키워드로 '중중-대화-책임-헌신'을 제시하고 팀 내 분위기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홍 감독은 '소통왕'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홍 감독은 유럽과 선수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선수들이 감독과 대표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들었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9월 대표팀 소집 때 적용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해란, 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 좌절

CPKC 여자오픈서 역전패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 문턱에서 돌아섰다.

유해란은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켈거리의 얼 그레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CPKC 여자오픈(총상금 26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쏟아내고 버디는 3개에 그쳐 3타를 잃고 말았다.

1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섰던 유해란은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쳐 공동 3위로 밀려났다.

지난주 데이나 오픈에서도 마지막 날 선전을 펼쳤지만 준우승에 그친 유해란은 2주 연속 우승컵 없이 대회를 마쳤다.

유해란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로런 코글린(미

국)은 1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쳐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코글린은 31세의 나이에 103번째 대회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올리며 상금 39만 달러(약 5억4000만원)를 받았다.

3라운드에서 대회 최저타인 61타 기록을 세운 사이고 마오(일본)는 4라운드에서도 3타를 줄이며 11언더파 277타로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5타를 줄인 신지은은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쳐 유해란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10번 홀까지 버디 2개, 보기 1개로 1타를 줄인 유해란은 1타를 잃은 코글린에 3타차로 앞서 나가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11번 홀(파4)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다. 페어웨이 병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이 그린 왼쪽

위터해저드에 빠진 데다 1벌타를 받고 친 네 번째 샷마저 그린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어프로치 샷에 이은 1퍼트로 더블보기를 적어낸 유해란은 이 홀에서 파를 잡은 코글린에 1타차로 쫓기게 됐다.

선두권 두 선수가 타수를 잃는 사이 사이고가 무섭게 치고 나왔다.

사이고는 15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유해란과 동타를 이루며 공동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유해란은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에 올랐지만 16번 홀(파4)에서 3퍼트로 보기를 하는 바람에 공동 선두로 내려왔다.

하지만 유해란은 17번 홀(파3)에서 또다시 3퍼트를 저질러 공동 선두 자리에서도 내려왔다. 이 홀에서 코글린은 회심의 버디 퍼트를 성공, 단독 선두로 달아났다. 사실상 우승을 놓쳐버린 유해란은 18번 홀(파4)에서 칩샷 실수까지 하면서 보기를 적어내 아쉽게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장원석 UBUNTU 박일광

2024.7.12(금) - 8.11(일)

광주예술의전당